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의 개발

Development of the 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

조 복 희*

Cho, Bok Hee

박 성 옥**

Park, Sung 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 development of a scale to assess maternal anxiety after mother-child separation. Subjects consisted of 384 mothers who had children from 6 to 36 months of age.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eighty Likert-type items and Spielberger's(1970) State Anxiety Scale were administered to mother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item analysis,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Cronbach's α , Pearson's correlation and F-test.

Sixty of the eighty items were significant and deemed acceptable through item discrimination method with indices ranging from .32 to .95. Factor analytic procedures have selected 54 items of the 60-item scale and supported a 5-factor solution. The subscales labeled 'Maternal Separation Anxiety', 'Perception of Separation Effects on the Child', 'Desire for Physical Cuddling and Closeness', 'Attitudes toward the Value or Importance of Exclusive Maternal Care' and 'Employment-related Separation Concerns.' Finally,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to reduce the length of the scale yielded a 39-item form for the 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MSAS).

Internal consistency of the MSAS was high(Cronbach's $\alpha = .85$). The correlation of the MSAS with the Spielberger's State Anxiety measure yielded a coefficient of .36, revealing a moderate and positive relationship.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어머니로부터 격리된 아동에 대한 실증적이고 임상적 흥미는 부모와 아동이 장기간 또는 영구

히 서로 격리되어진 경우가 허다한 2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유발되었다(Anna Freud, 1944; McBride, 1983 재인용). 이런 장기간 격리의 영향으로 나타난 아동의 인성발달이나 적응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에게는 흥미있는 연구의 주제

* 경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가 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발달심리학자와 아동 발달학자들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아동을 관찰하여 친밀한 어머니 모습의 부재로 나타나는 영향을 밝혔다(Heinicke & Westheimer, 1966; Robertson & Robertson, 1967). 나아가서 이혼으로 인한 부모-아동 격리(Hetherington, Cox & Cox, 1977), 그리고 어머니가 아닌 사람에 의해 돌보아지는 탁아시설을 이용한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과의 관계에도 연구가 진행되었다(Belsky & Steinberg, 1978).

최근 여성 취업의 폭발적인 증가로 어머니와 아동의 격리는 보편적이 되었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일상적인 과정으로서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격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의 추세로 계속된다면 1995년경에 이르러 취학전 아동의 2/3가 취업한 어머니를 갖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Hofferth & Phillips, 1987). 그리하여 매우 어린아동을 둔 어머니들이 영, 유아 탁아소와 같은 아동 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어머니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어머니와 격리로 인한 반응으로 나타난 영아의 불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영아에서의 격리 불안은 9-12개월 사이에 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불안에 대한 결정적 시기로는 12-19개월 사이로 나타나다가 2년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보편적 현상을 보인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Cohen & Campos, 1974; Fleener & Cairns, 1970; Lester, Kotelchuck, Spelke, Sellers & Klein, 1974; Maccoby & Feldman, 1972; Schaffer & Emerson, 1964). 영아의 격리 불안을 유발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검증된 요인들은 아동의 연령(Littenberg, Tulkin, & Kakan, 1971), 인지적 기능(Corter, Zucker & Galligan, 1980), 환경적 상황(Brookhart & Hock, 1976), 이차적인 애착 인물과 과도기적 대상(Corter, Rheingold &

Eckerman, 1972; Cummings, 1980), 부모의 특성과 어머니의 어휘적 이탈 형태(Adams & Passman, 1981; Weinraub & Lewis, 1977)를 포함한다.

그러나 많은 발달심리학자들이 어머니-영아 격리의 과정을 인간발달의 이해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 문헌에서 주의를 끌어온 초점은 거의 전적으로 영아에게만 주어져 왔다.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행동, 태도, 감정등의 변인이 중요하다고는 언급하고 있지만 격리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과 불안은 부수적인 사건으로 인식되어 거의 측정되지 않았었다. Hinde와 McGinnis(1977)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접근을 하였다. 이들은 뱃골산원숭이를 대상으로, 그들 새끼로부터 떼어놓은 어미원숭이의 격리반응을 관찰한 결과 격리시기 동안 어머니 새끼 양쪽 모두 상호작용의 능력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재결합 후에도 한동안 어미들과 새끼들은 이전에 가졌던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없었다. 비록 유사한 효과가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는 격리에 대한 아동의 일방적인 반응이 아닌 어머니와 아동 모두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Schaffer, 1977). 이와 관련지어 McBride와 Belsky(1988)의 관찰연구는 격리경험으로 인한 어머니가 나타내는 불안의 높고 낮은 수준은 정서적 장애가 될 수 있고 적절한 어머니됨을 간섭하며 이런 어머니의 행동이 아이의 격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격리불안의 양방향 측면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어머니 취업의 증가로 어머니로부터 영아의 격리가 오늘날 점차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 이므로 학자들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 격리불안의 본질과 결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어머니의 행동 및 심리적 특성은

아동이 나타내는 격리관련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정변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McBride & Belsky, 1988). Hock(1976)은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아동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즉 8개월된 영아를 둔 어머니를 면접한 결과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그 아동이 자라서 1세대 실험실에서 나타낸 영아의 격리 행동과 관련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격리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영아가 격리를 극복하려는 행동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음을 제시했다(Hock & Clinger, 1981). 이런 연구들은 격리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이 격리사건에 대한 영아의 인식뿐 아니라 뒤따라 보여주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지며, 아울러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복지와 행동에도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제시한다.

우리나라도 산업화에 따른 사회생활에 대한 여성의 참여의식의 고취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모성애에 대한 전통적 태도, 특히 영아에 대해 전적인 어머니 보호가 중요하다는 믿음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뿌리내려져 있다. 그러므로 취업 어머니의 죄책감이나 불안의식은 매우 높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여기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다만 어머니-영아의 애착행동 및 격리에 대한 연구(고경애, 1983; 박은숙, 1981; 이주혜, 1980; 정영숙, 1976 등)가 몇편 있을 뿐이다.

이 연구는 모두 영아가 갖는 불안과 발달특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을 뿐 어머니들이 갖는 격리불안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격리불안에 대한 이론과 실증적 연구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알맞은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성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 (1)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양호도는 어떠한가?
- (2)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 (3)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어머니의 격리불안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아이를 떠나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을 반영하는 불유쾌한 감정상태로서 정의 내려진다. 어머니의 표현은 아이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한 슬픔(sadness), 근심(worry), 불편함(uneasiness), 죄책감(guilt)의 감정을 내포하며 이런 정의는 격리사건과 관련되어진 불안의 일시적 상태를 지칭한다(Hock et al., 1984).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이고 다결정적인 구성개념이다. 어머니의 인성구조, 역할과 관련된 신념과 문화적 배경은 격리에 대해 어머니가 느끼는 방법에 기여할 수 있다. 격리불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정신분석학적인 접근과 애착행위를 설명하는 동물행동학 접근이 가능하다.

(1) 정신분석학적 접근

Freud(McBride, 1983, 재인용)에 의하면 "사랑받고 갈망하는 것을 놓치는 것은 불안의 이해에 열쇠가 된다"고 언급하면서 불안을 긴장, 위협의 불유쾌한 감정의 인식으로 보았다. Freud의 불안개념이 많은 이론가에 의해 수정, 논의되면서 일시적 상태의 불안과 비교적 영구적 특성의 불안

의 구분이 이루어졌다.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어머니-영아 격리 과정을 설명하고 어머니 역할을 언급한 초기의 연구는 Benedek(1959, 1970; Hock et al., 1989 재인용)와 Levy(1943; Hock et al., 1989 재인용)가 하였다. Levy의 연구에서는 “어머니로서 본질적인 모성본능은 어떤 마음의 힘과 문화적 힘의 작용에 의해 강하게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어머니의 이전 관계 경험에 근거를 둔 힘은 자신의 아이를 가까이 두려는 어머니의 욕구강도를 어느 정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Benedek은 격리불안의 감정은 모든 어머니에게 보편적인 것이며 생후 6개월 이내에 많은 젊은 어머니들은 짧은 시간동안이라도 아이와 떨어져 있을때 공허함을 느낀다고 한다.

보다 최근에 Mahler와 그의 동료들(1975)은 격리-개별화 장면의 기술에서 어머니 기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들의 연구가 비록 아동에 초점을 두었다 할지라도 어머니 스스로 영아에게 밀착하거나 “다정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헤어져 있을때에는 어머니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으로 밝혔다.

Spielberger(1972)는 불안의 특성-상태이론(Trait-State Theory of Anxiety)으로 발달시켜 불안을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특성불안은 위협이나 위협같은 폭넓은 상황을 인지할때 나타나는 불안으로 빈도와 강도에서 개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상태불안은 시간에 따라 불안의 강도가 변화하는 일시적인 정서상태로서 갈등상황이 과거에 명백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미래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할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혔다. 불안의 특성-상태이론에서는 불안상태를 유발하는 외적 및 내적자극, 위협으로서의 자극에 대한 인지적, 과정, 그리고 불안상태

를 피하고자 하거나 반응강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방어기제가 고려되어 설명된다.

자신의 아이로부터 실제 또는 예측된 격리에 대한 반응으로 어머니가 갖는 안절부절하는 감정(nervousness), 근심(worry), 죄책감(guilt)의 격리불안은 Spielberger의 상태불안의 유형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아동 격리가 어머니에게 불안의 요소가 되는 이유에 대한 이해는 동물행동학적 이론의 일부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명백해질 것이다.

(2) 동물행동학적 접근

John Bowlby(McBride, 1983 재인용)의 애착에 대한 동물행동학적 이론은 영아와 어머니의 격리불안 존재를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Bowlby는 Freud의 불안 개념과 Darwin의 진화론과 통합시켜 애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불안을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본능적 반응이라고 언급하면서 인간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영아 애착은 영아의 생존을 확신하기 위한 필연적인 행동으로 인간 본능적 행동체계의 결과로 보았다.

또한 Bowlby는 어머니-영아 애착 관계를 상호행동적으로 보았다. 영아의 경우, 어머니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해로운 것으로부터의 방어를 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생리적 기능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어머니에 대한 밀접함을 성취하도록 활동을 유발하는 목적-지향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경우는 자신의 어린시절을 보상하려는 본능적 반응으로 여겨질 수 있고, 영아와의 거리를 줄이고 밀접한 신체적 접촉으로 영아를 보유하려는 행동까지 포함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신체적 밀접함과 애정의 상호교환은 영아와 어머니 모두에게 즐거운 것으로 느껴지는 반면, 거부의 표현과 거리감은 양쪽 모두에게 동의되지 않

은 고통스러운 것으로 평가되고 느끼는 것으로 제시한다.

Bowlby에 의하면 격리와 관련된 행동은 어머니-아동 관계에서 형성된 호혜적이고 지속적인 애정 결속의 결과라고 한다. 아동의 격리불안은 어머니로부터의 관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유발되는 반면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아동과의 접근을 통한 안전성이나, 신체적 밀접함을 통한 보호나 안락감을 부여하는 자신의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경험하게 된다. 또한 어머니-아동 격리는 어머니-아동 상호작용동안 표현되는 친밀감을 방해하고, 주변세계에 대한 아동의 탐색과 발견을 조장하는 어머니의 능력을 감소시킨다. 이에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어머니-아동 애착의 본질적 결과로 보여진다.

2.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사회 문화적 배경

Averill(1976)은 정서가 종교, 예술, 과학 등과 같은 문화의 생산물처럼 불안도 복잡한 인지적 과정의 부산물이고, 불안의 정서적 반응의 생리적 기초는 사회구성체에 대한 요소가 관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문화 내에서 어린 아동으로부터의 격리된 어머니의 관심과 불안에 기여하는 여러환경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격리사건에 대한 개별 어머니 반응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어머니 격리불안에 대한 다양한 표현은 무엇보다 어머니 역할과 관련된 문화적 기대에 대한 여성의 해석으로 도출될 것이다. 최근까지 즉 1960년대 후반 여성운동이 시작되기전 까지 여성은 경력자로서 인정받는 직업선택을 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여성은 결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아이를 양육해오도록 사회에서 요구해 왔다. 이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여성에게 독특하고 가치로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의심의 여지없이 “홀륭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여성에게 가장 큰 덕목이었고 여성 역할의 이런 견해는 대부분의 사회제도에 지배적이었다. ‘어머니 됨’을 위한 이런 요구의 강도와 영향을 Russo(1976)는 “어머니 됨의 지시(motherhood mandate)”라고 명명하였다.

비록 여성운동이 여성들에게 자아-충족을 찾기 위해 자유를 가질 것을 제시하면서 여성의 의식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녀에 대한 어머니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의 믿음이 우세하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Thomson(1980)은 영아를 둔 378명 기혼 백인여성을 조사한 결과 아동이 어릴수록 어머니-아동 격리가 해롭다는 믿음을 시사하였다. Hock과 그의 동료들(1983)은 영아가 돌이 되기전에 일하러 나갈 계획을 세우는 여성 332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67%의 응답자가 여전히 어머니 보호가 전적으로 중요하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표현했다. 만약 “어머니됨의 지시”가 계속 사회에 주요한 영향력을 가진다면 여성의 경우 어린 아동으로부터의 격리에 대한 역할-관련 불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Hock과 그의 동료들(1983)이 제시한 것 처럼 영아의 어머니는 직장을 가지고자 하는 결정에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날 여성은 사회적, 경제적 요구 등의 이유로 일하러 나가야 할지를 선택하는 것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여성에게 어머니로서 전통적인 역할과 그들 어머니 자신에게 유용한 새로운 선택들 중 어느것을 결정해야 할지의 불안을 초래하게 한다(Moulton, 1980).

“어머니됨의 지시”가 사회, 문화적 기대에 우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사회, 문화적 배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성은 어머니-아동 격리의 인식에 특유의 개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Hock

과 그의 동료들(1983)은 젊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은 보다 나이들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보다 영아로부터의 격리에 관련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고한다. 또한 Bunge(1983)는 사회경제적지위(SES)에서 낮은 교육수준과 IQ점수에서 나타난 낮은 인지적 능력은 주어진 상황이 위협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머니 자신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화마다 어머니-영아 격리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정도는 엄청나게 다양하다. Frankel과 Roer-Bornstein(1982)는 두 유대인 공동체-Yemenites와 Kurdishes에서 영아 양육이념을 비교해 본 결과 이 두 공동체는 어머니-아동 관계의 밀접성에 대해 유의하게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urdish 유대인은 비어머니 보호를 선호하는 한편 Yemenite 유대인은 어머니-아동 격리 경험이 없는 것을 더 선호했다. 또한 Maital(1983)은 이스라엘어머니와 미국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태도 측정도구(Maternal Attitude Scale)와 Hock에 의해 개발된 어머니 격리불안 면접도구(Maternal Separation Anxiety Interview; MSAI)로 격리불안을 조사한 결과 미국 어머니들이 이스라엘 어머니보다 훨씬 더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져 어머니 격리 불안에 대한 기본적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어머니 격리불안의 정도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로 다음과 같은 것이 연구되었다. 양육과 관련된 인성변인 특히 자긍심(self-esteem)의 수준에 관련된 요인(McBride & Belsky, 1988); 그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격리되었던 인식과 기억(Gnezda, 1983); 격리사건에 대한 이유(Pitzer, 1984); 아동의 특성과 아동의 불안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McBride & Belsky, 1988); 비어머니 보호에의 경험과 확신(Pitzer,

1984); 어머니로서의 역할참여 및 경력지향성(Gnezda, 1983); 어머니의 취업상태와 취업선택성(DeMeis, Hock & McBride, 1986) 등이 포함된다. 이런 변인들은 Spielberger가 제시한 방어가제나 극복책략의 중요한 결정변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격리사건의 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불안의 존재나 부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어머니 격리불안의 측정도구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그 본질에 있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측정도 쉽지 않다. Hock과 그의 동료들(1983)은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짧은 기간이지만 일상적인 어머니-아동격리와 연관된 어머니의 관심과 염려로서 한정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격리불안이란 아동과의 격리에 대한 어머니가 갖는 슬프고(sad), 두렵고(fearful), 걱정스러운(nervous) 감정으로 격리로 인해 아동이 갖게 될 불안에 관한 관심과 어머니 보호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믿는 것을 포함한다고 개념화 하고있다. 아울러 아동이 격리되면 아동의 사회성과 독립성의 발달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것으로 어머니들이 믿는 것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균형을 이루려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자신의 해석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머니 격리불안의 이런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Hock은 초산부 620명을 대상으로 어머니 관점에 초점을 두어 격리에 대한 감정의 표현, 신체적 밀접함과 꺼앉는 것에 대한 갈망, 어머니보호의 전적인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한 태도,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보호로부터 아이가 얻는 이익과 이에 적응하는 아동의 능력에 대한 신념, 취업-관련 격리의 논점을 둘러싼 관심 등의 내용 영역을 포함한 68문항을 선정한 후(1976, 1980), 주요

성분 추출 요인 분석을 이용한 구인타당화 (construct validity)를 통해 35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Hock, Gnezda, & McBride, 1983). 이렇게 개발된 자기보고식 어머니 격리불안 척도(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MSAS)는 다음 3가지 중요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변인 1: 격리에 대한 어머니의 염려, 슬픔, 죄책감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어머니 격리불안(21 문항)

하위변인 2: 아동의 격리반응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격리에 의해 유발되는 아동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인식(7문항)

하위변인 3: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취업 역할과 책임과의 균형에 대한 취업관련의 어머니 태도(7 문항)

이 측정도구를 가지고 Hock과 그의 동료들(1989)은 요인구조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400명의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3개월 후에 실시하여 얻어진 안정성 신뢰도 계수는 각 하위변인에서 .73, .58, .72(전체는 .75)로 나타났다. 또한 내적합치도를 보기 위해 얻어진 α 계수는 각각 .90, .71, .79(전체는 .88)로 나타나 어머니의 격리불안 도구의 3하위 변인 구조는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Hock et al, 1989; Pitzer, 1984). 하위 변인간의 상호 상관계수는 하위변인 1, 2는 .19, 하위변인 1, 3은 .22, 하위변인 2, 3은 .22로서 나타난 낮은 상관계수는 각 하위변인들이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McBride, 1990; McBride & Belsky, 1988). 그후 Gnezda(1983)은 어머니 격리불안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후 평정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MSAS의 공인 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상관계수 .77로 밝혔다. Gnezda의 연구결과는 어머니 격리불안의 측정도

구로서의 MSAS의 타당성을 지지해 주었다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대전 시내에 거주하는 생후 6개월-36개월이 된 영, 유아의 어머니 38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표집방법은 서울시와 대전시에 소재한 소아과를 전체 행정구 단위로 분류하여 각 구에서 2개 내지 3개의 소아과를 임의로 선정하여 그 병원에 다니는 영, 유아의 어머니에게 면접으로 조사하였다.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 분	N	%
어 머 니 의	연 령	20 대	233 60.7
		30 대	141 36.7
		무 응 답	10 2.6
특 성	학 령	고 졸 이 하	209 54.4
		대 졸 이 상	174 45.3
		무 응 답	1 .3
직 업	직	유(전업제 및 시간제)	140 36.5
	업	무	241 62.8
		무 응 답	3 .8
가 족 형 태	가 족	핵 가 족	251 65.4
	형 태	확대가족+기타	130 33.9
		무 응 답	3 .8
수 입	수	50만원 미만	20 5.2
	입	50-100만원 미만	240 62.5
		100만원 이상	122 31.8
		무 응 답	2 .5

N=384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와 그 영, 유아 자녀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어머니 자녀의 성별, 출생순위, 월령별분포

변인		구분	N	%
아동	성별	남아	204	53.1
		여아	174	45.3
		무응답	6	1.6
특성	출생순위	만아	254	66.1
		둘째이하	124	32.3
		무응답	6	1.6
성월령	월령	6-12개월	86	22.4
		12-24개월	160	41.7
		24-26개월	138	35.9

N=384

어머니들의 교육수준, 가정의 수입 분포결과를 통해 연구대상자들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대체로 중상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로는 Hock의 어머니 격리불안척도와 Spielberger의 상태불안검사가 사용되었다.

(1)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제 측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문항을 수집하기 위해서 Hock (1976)이 사용한 문항이 중심이 되었다. 그가 어머니들과의 면접과정에서 얻어진 내용을 기초로 개발한 68문항의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 (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MSAS)를 본 연구자가 번안한 후 질문표현이 어색하고 의

미전달이 애매모호한 문항등을 사전 예비 조사를 통해 몇차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Hock이 최종적으로 개발한 35문항의 척도대신 그 척도개발의 기초가 된 문항을 모두 사용한 것은 우리 문화와 다르리라는 가정하에 문항 추출이 똑같을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다시 그 척도개발 과정을 밟아 보려고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6개월에서 36개월된 영, 유아의 어머니 35명에게 1, 2차 두차례의 전화면접을 통해 자신의 아이와 떨어지게 될때 어머니가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이나 불안, 어머니 이외의 다른 사람의 보호에 대한 태도, 직업과 관련된 격리에 대한 표현 등을 10개 이상의 구체적 문장으로 자유기술시켜 얻어진 것을 종합하여 빈도가 높은 내용을 본 척도의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Hock의 격리불안척도에 제시된 내용과 중복되는 문항은 제외시켰더니 총 12개의 문항이 수집되었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는 총 8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형이다. 이 중 20문항은 질문의 내용이 반대의 개념이므로 점수가 재채점(recoding)되었다.

(2) Spielberger의 상태불안 검사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비슷한 유형의 불안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태불안(State Anxiety)를 측정하기 위해 상태불안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Spielberger가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I: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번안하여 한국형으로 표준화 시킨 STAI Form I, Form II 중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STAI Form I인 것이다. 이 검사는 간편하고 객관적인 자기보고형의 단일척도로서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조사

문항의 수정을 위한 예비조사는 1991년 12월 15일부터 1992년 1월 10일 사이에 실시되었고 본 조사는 1992년 1월 14일부터 1월 24일까지 조사되었다. 면접방법을 훈련받은 아동학전공 학생 20명이 사전에 전화와 서신을 통해 협조를 의뢰받은 바 있는 서울시와 대전시에 소재하는 28개 소아과를 방문하여 그곳에 와서 대기중이거나 진료를 마친 6개월-36개월에 해당되는 영, 유아의 어머니에게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각 면접조사 시간은 약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문항양호도 분석,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으로 대별하여 spss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문항양호도 분석은 문항의 반응율과 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문항반응율은 평점점수의 평균으로, 변별도는 χ^2 와 Crammer's V계수를 내어 분석하였다. 변별도는 응답 총점 분포를 기초로 상 27% 집단과 하 27% 집단을 선정한 후 각 문항별 반응 빈도가 두 집단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χ^2 검증하고, 그 관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V계수를 사용하였다.

타당도 검증은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을 변인으로 요인분석 하였다. 요인분석의 모델은 주요인 분석 모델을, 회전방법으로는 varimax직교회전 방법을 선택했다. 추출요인의 수 결정은 Scree검증결과와 설명변량을 참고로 했다. 또한 보다 적은 수의 타당한 문항으로

척도를 정선하고자 요인분석에서 얻은 척도에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본 척도가 측정하려는 속성이 그 속성의 기준이 되는 척도와 의 준거관련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의 점수와 Spielberger의 상태불안 검사의 점수와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또한 타당도에 대한 보충적 자료를 삼기위해 어머니들의 일상적 격리상황(직업)에 대해 자신의 가치관과 현재상태의 만족과 갈등을 나타내는 네가지 범주 즉 (1)아이때문에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 (2)아이때문에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나 직업을 가진 경우, (3)직업을 가지기를 원하나 직업이 없는 경우, (4)직업을 갖는 것이 아이와 자신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며, 직업을 가진 경우로 나누어 각 집단간 점수분포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F-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문항 양호도

어머니의 격리불안척도 개발을 위한 처음 단계에서, 본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변별도 면에서 양호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χ^2 값과 Cramer의 V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같이 문항 변별도를 나타내는 χ^2 를 보면 80개 문항 중 20개 문항을 제외한 60개 문항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 척도에서 χ^2 결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문항들은 총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한 Cramer의 V계수는 .23-.95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나 변별도 지수의 일반적인 수용수준이 .25 이상임을 고려하여 이중 V계수가 .25미만의 문항은 제외시켰다.

따라서 문항변별도를 나타내는 χ^2 값과 V계수를 조합하여 본 결과 총 60문항이 변별도 측면에서 양호한 문항들로 나타났다.

〈표 3〉 문항별 변별도

문항	χ^2	Cramer의 V계수	문항	χ^2	Cramer의 V계수
2	18.25**	.66	39	19.58**	.69
3	12.35**	.54	40	24.05**	.76
4	18.29**	.66	41	17.00**	.64
6	24.76**	.77	43	18.78**	.67
7	23.80**	.76	44	16.12**	.62
8	17.35**	.62	45	15.96**	.61
9	14.64**	.59	46	15.41**	.61
10	31.32**	.87	47	18.40**	.66
11	19.02**	.68	48	31.33**	.87
13	29.32**	.84	50	31.56**	.87
14	25.05**	.78	51	24.48**	.77
15	25.27**	.78	52	22.70**	.74
17	13.92**	.58	53	11.72**	.53
18	14.84**	.60	54	18.40**	.66
19	17.68**	.65	55	12.26**	.54
20	29.91**	.85	56	19.67**	.68
22	26.49**	.80	57	12.33**	.54
23	37.36**	.95	59	17.55**	.65
24	21.39**	.72	60	12.65**	.55
25	14.15**	.58	61	12.18**	.54
26	15.99**	.62	62	24.53**	.77
27	17.50**	.65	65	37.44**	.95
29	19.50**	.68	67	14.44**	.59
30	26.22**	.79	71	24.53**	.69
31	12.17**	.54	72	19.61**	.69
33	30.50**	.86	73	20.35**	.70
34	34.99**	.92	75	18.52**	.67
35	16.27**	.63	77	33.59**	.90
36	37.18**	.95	78	22.34**	.73
38	12.36**	.54	79	33.69**	.90

** p < .01

누락된 문항은 변별도 분석결과 제외된 문항임

2. 타당도

먼저 문항들의 구조를 파악하고 척도의 타당성

을 검증하며 불필요한 문항들을 제거하기 위해 앞서 문항변별도 과정에서 양호한 특성으로 선정

된 60개 문항에 기초하여 요인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각 요인의 고유치가 1.00이상인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인 문항만을 선정한 결과 5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전체 변량의 69.8%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내용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어머니 격리불안척도의 요인행렬표

문항/요인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h^2
72	.73					.54
77	.70					.55
79	.64					.50
78	.62					.51
33	.57					.42
34	.51					.38
51	.49					.19
48	.48					.35
26	.47					.27
7	.46					.39
25	.45					.42
31	.44					.33
3	.43					.32
14	.38					.41
2	.37					.23
65	.35					.34
43	.32					.31
53	.30					.35
52		.65				.49
59		.60				.30
62		.57				.52
67		.55				.34
46		.53				.39
19		.51				.35
11		.44				.27
61		.42				.31
56		.41				.35
8		.41				.39
24		.38				.41
36		.36				.36
73		.35				.28
17		.34				.26
29		.30				.29

55	.58					.41
15	.56					.31
9	.51					.24
4	.51					.33
60	.46					.42
47	.45					.26
13	.39					.45
44	.36					.34
18		.62				.44
23		.60				.53
30		.56				.37
20		.50				.47
38		.44				.39
54		.43				.41
6		.40				.37
27		.39				.22
41				.52		.44
57				.48		.46
45				.43		.33
10				.37		.29
75				.34		.32
고유치	5.06	1.79	1.36	1.28	1.01	
설명변량 (%)	33.8	12.0	9.0	8.2	6.8	
총설명변량 (%)			69.8			

첫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33.8%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서, 격리에 대해 염려, 슬픔, 죄책감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어머니의 불안을 나타내는 문항들(18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머니의 격리불안'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이런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우리 아이와 떨어질때 개가 야단법석을 펼 경우 나는 자책감을 느끼고 마음이 불편해진다."

전체 설명변량의 12.0%를 차지하는 요인 II에 주요 부하량을 보이는 15개 문항은 어머니가 아닌 사람에게 의한 보호 및 타아에 대한 아이의 적용과 이익에 대한 어머니들의 믿음과 인식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아동의 격리반응 및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II에 포함되는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우리 아

이는 자신의 발달을 위해 나와 떨어져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세번째 요인은 전체 설명변량의 9.0%를 차지하는 요인으로서 절대적인 어머니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문항들(8개)로 이루어져 ‘어머니 보호의 절대적인 믿음과 가치’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이런 개념에 관련된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아이가 몹시 괴로워 할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엄마만은 안다.”

네번째 요인 역시 8개 문항으로 8.2%의 설명변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 요인 IV는 어머니로서 갖는 모성능능적인 욕구로 표현되는 신체적 접촉 및 밀접함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체적 접촉 및 밀접함에 대한 열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IV에 포함되는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는 우리 아이와 떨어져 있을때 붙잡거나 껴안고 싶어한다.”

마지막 요인 V는 전체 설명변량에서 가장 낮은 6.8%를 차지하는 요인으로 구성된 5개 문항 모두 ‘직업과 관련된 격리관심 및 태도’로 명명된 요인의 명료한 의미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런 개념에 관련된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지내기 위해 나의 직업을 포기하는 것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5개 구성요인은 선행연구(Hock et al., 1989; McBride & Belsky, 1988)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개의 하위영역 중 가장 주요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는 ‘일반적인 어머니의 격리불안’요인이 본 연구결과에서는 ‘어머니 보호의 절대적인 믿음과 가치’와 ‘신체적인 접촉 및 밀접함에 대한 열망’요인으로 보다 세분화되었으며, 나머지 두 요인인 ‘아동의 격리반응 및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직업과 관련된 격리관심 및 태도’는 일치되었다. Hock과 그의 동료들(1983)의 연구에서

는 3-9개월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구성요인과 다소 다르지 않나 여겨진다. 한편으로 요인의 세분화는 대상기준이 다르다는 점 외에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회귀분석

다음에는 보다 적은 수의 타당한 문항으로 척도를 정석하고자 요인분석에서 얻은 척도에 단계별 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를 다음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각 요인에 포함된 모든 문항으로 하나의 척도를 구성하여 종속변수로 하고, 각각의 문항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각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증가하는 설명력(R^2)을 통해 문항들을 선정하는 방법이다(홍두승, 1987). 문항의 선정에 있어서 종속변수의 구성성격에 입각해 볼때 설명력의 증가분이 3%미만인 문항을 척도구성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정보의 큰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간주할 수 있다.

<표 5> 요인별 단계별 회귀분석

요 인	문 항	회귀식에 문항이 추가된 후의 R^2
요인 I	33	.42
	78	.52
	14	.59
	48	.62
	7	.68
	72	.72
	65	.75
	34	.78
	53	.82
	31	.85
	79	.88
	26	.91

	77	.94
	*51	.96
	*25	.97
	* 2	.98
	* 3	.99
	*43	1.00
요인 II	36	.31
	52	.45
	67	.64
	61	.72
	29	.76
	46	.81
	8	.85
	59	.88
	13	.91
	62	.94
	*17	.96
	*56	.97
	*73	.98
	*24	.99
	*19	1.00
요인 III	47	.36
	44	.56
	9	.73
	55	.82
	60	.90
	15	.96
	* 4	.98
	*13	1.00
요인 IV	20	.51
	18	.73
	23	.80
	6	.89
	30	.95
	*38	.97
	*27	.99
	*54	1.00
요인 V	57	.52
	10	.68
	75	.78
	45	.91
	41	1.00

* 설명력 증가분이 3% 미만인 경우로 제외된 문항

요인 I의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51, 25, 2, 3, 43번 문항의 경우 설명력의 증가분이 3% 미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Hock(1983)의 타당화 연구에서도 역시 제외된 문항들로서 이는 격리로 인한 어머니 불안이 구체적인 상황으로 언급되지 않아 '어머니 격리불안'요인에 대한 기여가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나머지 13개 문항은 전체 분산의 94%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II의 회귀분석에서는 15개의 문항 중 17, 56, 73, 24, 19번이 3% 미만의 설명력 증가분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문항은 전체 분산의 94%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격리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격리에 대한 아이의 적응 능력 및 이익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믿음이 중요한 내용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요인 III의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는 4, 13번 문항이 제외되었는데, 여기서 제외된 문항은 어머니 자신이 곁에 있어야만 아이가 불안을 나타내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믿음을 나타내는 문항들로서 절대적인 어머니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상대적으로 덜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6문항은 전체분산의 96%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IV의 경우는 38, 27, 54번 문항이 3%미만의 설명력 증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신체적 접촉과 밀접함에 대한 열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문항들로서 요인 IV에 대한 기여가 낮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나머지 5문항은 전체분산의 95%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V의 회귀분석에서는 모든 문항이 3%이상의 설명력 증가분을 보여 모두 유용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실시된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60개 문항에서 21문항이 제외되고 39개 문항의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

도가 구성되었다. 이것은 Hock과 그의 동료들(1989)이 개발한 척도의 35개 문항 중 26개 문항은 일치되고 그들의 척도에서 제외되었던 8문항이 포함되었으며, 본 연구자가 첨가한 12개의 문항 중 5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측정하려는 속성이 그 속성의 기준이 되는 척도와의 준거관련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격리불안척도와 Spielberger의 상태불안검사(20문항)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r=.36$, $p<.001$ 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어머니 격리불안척도의 타당성을 지지해주고 있다(〈표 6〉참조). 이와같은 결과는 Hock과 그의 동료들(1980)이 MSAS의 준거관련 타당성을 보기 위해 'Taylor Manifest Anxiety Scale'과 'Edwards Social Desirability Scale'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각각 $r=.34$, $-.39$ 의 결과를 얻는 것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

으나, Gnezda(1983)이 어머니 격리불안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후 평정한 점수를 기준으로 한 MSAS의 공인타당도에서 제시한 $r=.77$ 에 비해서는 낮은 상관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결과는 Hock과 그의 동료들(1989)과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한 검사도구가 불안의 일반적인 개념을 측정하는 것에 비해 Gnezda(1983)의 경우는 아이와의 격리로 인한 불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질문에 기인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겠다.

상태불안과 어머니 격리불안의 각 요인과의 상관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요인 I은 강한 관련성이 있으나 다른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은 있지만 비교적 상관계수가 낮았다. 이는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를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간 상호상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McBride와 Belsky(1988)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인간의 낮은 상관정도와 일치된 결과이다.

〈표 6〉 어머니의 격리불안(총점)과 상태불안 및 각 요인과의 상관계수

	어머니의격리불안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상태불안
어머니의격리불안	1						
요인 I	.83**	1					
요인 II	.59**	.33**	1				
요인 III	.58**	.43**	.05	1			
요인 IV	.62**	.37**	.20**	.37**	1		
요인 V	.53**	.22**	.19**	.27**	.30**	1	
상태불안	.36**	.38**	.19**	.11**	.20**	.10*	1

* $p<.05$ ** $p<.01$

그리고, 타당도에 대한 보충적 자료를 삼기 위해 어머니들의 일상적 격리상황(직업)에 대해 먼저 자신의 가치관과 현재 상태의 만족과 갈등을 나타내는 네 가지 범주 즉 (1)아이때문에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 (2)아이때문에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나 직업을 가진 경우 (3)직업을 가지기를 원하나 직업이 없는 경우 (4)직업을 갖는 것이 아이와 자신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며 직업을 가진 경우로 나누어 F-test를 실시한 결과, 다음 〈표

7)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이때문에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의 가장 격리불안이 높은 집단과 “직업을 갖는 것이 아이와 자신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며 직업을 가진 경우”의 가장 격리불안이 낮은 집단간의 뚜렷한 점수 차이를 보임으로써 본 척도의 일반화

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Gnezda와 Hock(1983)과 DeMeis와 그의 동료들(1986)의 연구에서 취업의 선호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격리불안이 낮게 나타나며, 아이와 함께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경우 격리불안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표 7〉 취업선호성과 취업상태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총점)의 F검증 결과

변인		통계치	N	Mean	SD	F	Duncan의* 추후검증
취업선호	취업상태						
비선호	무		71	127.61	11.28	7.05**	A
비선호	유		8	119.12	19.80		B
선호	무		45	120.77	12.21		B
선호	유		32	115.53	15.91		C

* Duncan Multiple Range Test에 의한 집단화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 $p < .01$

3. 신뢰도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를 구체적인 계수로 반영해주는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85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 8〉에서 보는 바와같이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70 - .81의 범위로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 5개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Cronbach's α
요인 I	.81
요인 II	.70
요인 III	.78
요인 IV	.75
요인 V	.74

이는 Hock과 그의 동료들(1983)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 Cronbach의 α 계수 .90, .71, .79보다는 다소 낮게 나왔으나, 9개월 후 측정된 Cronbach의 α 계수가 .70, .66, .75로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볼때 전체적으로 다소 유사한 신뢰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조의 요인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들은 3개월 후에 재검사 신뢰도를 실시하여 요인 I이 1.0, 요인 II가 .98, 요인 III은 .99의 신뢰도 계수를 얻어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신뢰도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V. 요약 및 결론

어머니가 자녀와 격리됨으로써 느끼는 격리불안을 측정하고자 척도의 개발을 본 연구에서 시도하였다.

먼저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자가 수집한 80문항의 척도를 가지고 문항변별도를 보기 위해 산출한 χ^2 과 Cramer의 V계수를 조합한 결과 변별도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 χ^2 의 유의도 $p < .01$ 과 .25 이상 V계수의 60문항을 추출하였다.

이것으로 구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 분석한 결과 5개 하위요인(고유치 1이상, 요인부하량 .30이상인 54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다 적은 수의 타당한 문항으로 척도를 정선하고자 요인분석에서 얻은 척도에 단계별 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설명력(R^2)의 증가분이 3% 미만인 문항 15개를 척도구성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총 3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5개의 하위영역은 요인 I : 어머니의 일반적 격리불안, 요인 II : 아동의 격리반응 및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요인 III : 어머니 보호의 절대적인 믿음과 가치, 요인 IV : 신체적 접촉 및 밀접함에 대한 열망, 요인 V : 직업과 관련된 격리 관심 및 태도로 명명되었다.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5개 요인별로 하위 문항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만족스러운 것이었으며($p < .01$), 또한 내적합치도를 반영하는 Cronbach의 α 계수 역시 .85로 나타나고 요인별로는 .70-.81의 범위로서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39문항의 어머니의 격리불안척도와 Spielberger의 상태불안검사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r = .36$, $p < .001$ 로 나타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어머니 격리불안척도의 준거관련 타당성을 지지해 주었으며 다음으로, 일상적 격리상황에 대해 어머니의 취업선호성과 현재상태의 만족과 갈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각 집단간 뚜

렷한 특성을 나타내 본 척도의 일반화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밝혀진 본 척도의 문항양호도, 타당도, 신뢰도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된 현재의 구성척도가 우리나라 6개월-36개월 아동을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추후연구를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척도의 일반화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표집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의 격리불안 구성요인의 확인연구의 필요성과 아울러 질문지에 근거한 응답외에 면접이나 관찰을 통한 실제 격리상황에서의 어머니의 행동, 표정, 어휘적 표현 등의 다각적인 자료의 활용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관련변인의 규명을 위한 후속연구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척도는 6개월-36개월 아동의 어머니들이 갖는 격리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개발되었으나, 아동연령에 따라 어머니들이 갖는 불안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발달적 차원을 근거로 아동연령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확장하여 어머니의 격리불안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작업도 앞으로 시도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본 척도의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기-중단적 접근을 시도하여 시간적 변화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검증해 보는 것이 추후의 중요한 연구과제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고경애 (1983).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인지적 능력

- 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 박은숙 (1981). 어머니의 양육차원이 한국 유아의 낯가림, 격리불안 및 대물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혜 (1980). 유아의 낯가림 및 격리불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정영숙 (1976). 한국유아의 낯가림과 격리불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두승 (1987). 사회조사분석, 서울: 다산출판사.
- Adams, R. E. & Passman, R. H. (1981). The effects of preparing two-year-olds for brief separations from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52, 1068-1070.
- Averill, J. R. (1976). Emotion and anxiety: Sociocultural,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determinants. In M. Zuckerman & C. D. Spielberger (Eds.), Emotions and anxiety: New concepts,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Wiley.
- Belsky, J. & Steinberg, L. D. (1978). The effects of daycare: A critical review. Child Development, 49, 929-949.
- Breit, H. (1982). Separation anxiety in mothers of latency-age fearfu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35-144.
- Brookhart, J. & Hock, E. (1976). The effects of experimental context and experimental background on infants' behavior toward their mothers and a stranger. Child Development, 47, 333-340.
- Cohen, L. & Campos, J. (1974). Father, mother, and stranger as elicitors of attachment behaviors in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10, 146-154.
- Corter, M., Zucher, K. & Galligan, R. (1980). Patterns in the infant's search for mother during brief sepa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2-69.
- Corter, C., Rheingold, H. & Eckerman, C. (1972). Toys delay the infant's following of his mother. Developmental Psychology, 6, 138-145.
- Cummings, E. (1980). Caregiver stability and day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16, 31-37.
- Fleener, D. & Cairns, R. (1970). Attachment behaviors in human infants: Discriminative vocalization on maternal sepa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 215-223.
- Frankel, D. G., & Roer-Bornstein, D. (1982). Traditional and modern contributions to changing infant-rearing ideologies of two ethnic communiti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7, (Serial No. 196).
- Gnezda, M. T. (1983). The nature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s it relates to employment-related separ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Family Relations and Human Development,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 Hansburg, H. G. (1972). Adolescent separation anxiety: A method for the study of adoles-

- cent separation problem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Heinicke, C. M. & Westheimer, I. J. (1965). Brief separatio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77). Beyond father absence: Conceptualization of effects of divorce. In E. M. Hetherington & R. D. Parke(Eds.), Contemporary readings in child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Hinde, R. A., & McGinnis, L. (1977). Some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s of a temporary mother-infant separation: Some experiments with rhesus monkeys. Psychological Medicine, 7, 197-212.
- Hock, E. (1976). Alternative approaches to child rearing and their effects on the mother infant relations. Urbana, IL: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Early Childhood Education (ED 122943).
- Hock, E. (1980).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nd their infants: A comparative study of maternal caregiving characteristics and infant social behavior. Merrill Palmer Quarterly, 26, 80-101.
- Hock, E. & Clinger, J. (1980). Behavior toward mother and stranger of infants who have experienced group day care, individual care, or exclusive maternal car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7, 49-61.
- Hock, E., Gnezda, T., & McBride, S. (1983). The measurement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Detroit, MI.
- Hock, E., Gnezda, T., & McBride, S. (1984). Mothers of infants: Attitudes toward employment and motherhood following birth of first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425-431.
- Hock, E., McBride, S., & Gnezda, T. (1989). Maternal separation anxiety: Mother-infant separation from the matern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0, 793-802.
- Hofferth, S., & Phillips, D. (1987).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1970-199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559-571.
- Lester, B., Kotelchuck, M., Spelke, E., Sillers, M., & Klein, R. (1974). Separation protest in Guatemalan infants: Cross-cultural and cognitive findings. Developmental Psychology, 10, 79-85.
- Littenberg, R., Tulkin, S. R., & Kagan, J. (1971). Cognitive components of separation anxiety. Developmental Psychology, 4, 387-388.
- Maccoby, E. E. & Feldman, S. S. (1972). Mother attachment and stranger reactions in the third year of lif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7,(Serial No. 2).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Maital, S. L. (1983). An examination of American and Israeli mothers'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preschool entry (Doctoral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4, 339-B.

- McBride, S. L. (1990). Maternal moderators of child care: The role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49, 53-70.
- McBride, S. L., & Belsky, J. (1988). Characteristic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Child Development, 24, 407-414.
- Phillips, D., and Howes, C. (1987). Quality in child care: Review of research. In D. Phillips(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 Research Monograph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Vol. 1, Washington, D. 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Robertson, J. & Robertson, I. (1967). Young children in brief separation. No. 1. (Film: Guide Book). London: Tavistock Institute of Human Relations. New York: University Flim Library.
- Russo, N. F. (1976). The motherhood mandate. Journal of Social Issues, 32, 143-153.
- Schaffer, H. & Emerson, P. (1964). The development of social attachments in infanc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9,(Serial No. 94).
- Schaffer, R. (1977). Mother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pielberger, C. D. (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C. D. Spielberger(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Vol. 1,(pp. 192-253). New York: Academic.
- Thomson, E. (1980). The value of employment to mother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551-556.
- Weinraub, M. & Lewis, M. (1977). The determinants of children's responses to separ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2,(Serial No. 172).

부 록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

요 인	번호	질 문 내 용	질문지번호 ¹⁾
어머니의 격리불안	1	우리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²⁾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지 또는 잘 먹는지 등으로 염려가 된다.	7
	2	우리아이를 아기 돌보는 사람이나 유아원 ²⁾ 에 맡기면 나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느낀다.	14
	3	우리아이와 떨어질 때 개가 야단법석을 펼 경우 나는 자책감을 느끼고 마음이 불편해진다.	26
	4	나는 우리아이와 떨어지게 될때 개가 울지 또는 나를 그리워 할지 의아스럽다.	31
	5	내가 없을때 아이가 슬퍼하거나 당황해 할 경우 아기 돌보는 사람이 아이를 잘 위로하거나 달래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33
	6	아기돌보는 사람이나 유아원교사와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아이에게 좋을지, 나쁠지에 대해 진심으로 염려된다.	34
	7	아이를 탁아소나 아기돌보는 사람에게 맡기고 떠날때 내 아이가 울고 야단법석을 할 경우 다른사람들이 나를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라고 생각할까봐 두렵다.	48
	8	아이들은 자신의 엄마없이 혼자 새로운 장소에 있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53
	9	만약 내가 자식과 함께 있지 않다면 우리아이가 낯선 상황에서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으로 염려된다.	65
	10	우리아이가 다른사람의 손에 맡겨질때 아이의 버릇이나 습관이 잘 못 형성될까 걱정이 된다.	72
	11	우리 아이를 다른사람에게 맡기면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인격형성이나 정서발달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된다.	77
	12	우리 아이를 다른사람에게 맡기면 아이의 지적발달이 늦어지게 될까봐 걱정된다.	78
	13	아기돌보는 사람이 우리아이를 귀찮아 하거나 자기 아이처럼 잘 돌봐주지 않을까 불안하다.	79

1) 질문지 번호는 어머니의 격리불안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번호로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항번호와 일치된다.

2) 질문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직장 또는 여러가지 일로 한나절 잠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아기 돌보는 사람은 시, 친정부모, 친인척, 부모, 파출부 등을 의미하고 유아원의 범위는 유치원, 탁아소, 놀이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아동의 격리 반응 및 영 향에 대한 어 머니의 인식	14	독립적이고 진취적 아이라면 엄마의 도움없이도 쉽게 친구를 사귈 것이다.	8 ³⁾
	15	집에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경험을 유아원, 탁아소, 놀이방 등 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다니는 것은 우리아 이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11
	16	우리아이가 낯선사람과 새로운 장소에서 지내는 것은 독립적으로 클수 있으므로 나와 떨어져 시간을 보내는 것도 유익하다.	29
	17	비록 우리아이가 나와 떨어질때 약간 안달을 할지라도 시야에서 벗어나면 몇분이내에 괜찮아 질것이다.	36
	18	내가 아이와 함께 있던 없던간에 나는 우리아이가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할 것으로 예측한다.	46
	19	우리아이는 어떤 다른사람이 돌보는 것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이 다.	52
	20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어머니 외에 자신을 보살펴 주는 사람에 대 해 매우 쉽게 적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59
	21	아이들은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적응한다.	61
	22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우리아이에게 좋을 것이다.	62
	23	아이들은 자신의 엄마보다 다른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필요 할 때가 있다.	67
어머니 보호 의 절대적인 믿음과 가치	24	나와 다른 양육태도를 가진 사람이 우리아이를 돌보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다.	9
	25	나는 아기돌보는 사람이나 유아원 교사보다 우리아이의 신체적 안 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5
	26	우리아이는 아기돌보는 사람이나 유아원교사와 함께 있을때 보다 나와 함께 있을때 훨씬 더 행복해 한다.	44
	27	우리 아이는 어떤 다른사람보다 나와 함께 있기를 좋아 한다.	47
	28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아이를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을 잘 한다.	55
	29	아이가 몹시 괴로워 할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 줄수 있는지를 엄마만은 안다.	60

3) 질문지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재부호화(recoding)되어진 문항은 8, 11, 29, 36, 45, 46, 59, 61, 62, 67번이다.

신체적 접촉	30	우리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나는 즐겁지 않다.	6
및 밀접함에	31	나는 우리아이를 꼭 붙잡거나 껴앉는것을 좋아해서 아이와 떨어져	18
대한 열망		있으면 그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싶어한다.	
	32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아이와 가까이 지내고 싶다.	20
	33	나는 우리아이와 떨어져 있기가 싫다.	23
	34	나는 우리아이와 떨어져 있을때 붙잡거나 껴앉고 싶어한다.	30
직업과 관련	35	만약 직장일로 우리아이와 떨어져 지내야만 한다면 나는 나의 직	10
된 격리관심		장을 탐탁히 여기지 않게 될것이다.	
및 태도	36	나는 우리아이와 함께 지내기 위해 나의 직업을 포기하는 것에 후	41
		회하지 않을 것이다.	
	37	아이는 나를 매우 필요로 하나 나는 종종 내 직장을 위해 보다 많	45
		은 시간을 가지기를 원한다.	
	38	우리아이를 위해 집에 머물것인지 또는 계속 직장을 가져야 할 것	57
		인지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집에 머물기를 원한	
		다.	
	39	아이가 어릴때는 직장을 갖지 않을 것이지만 아이가 어느정도 자	75
		라면 직업을 가질것이다.	